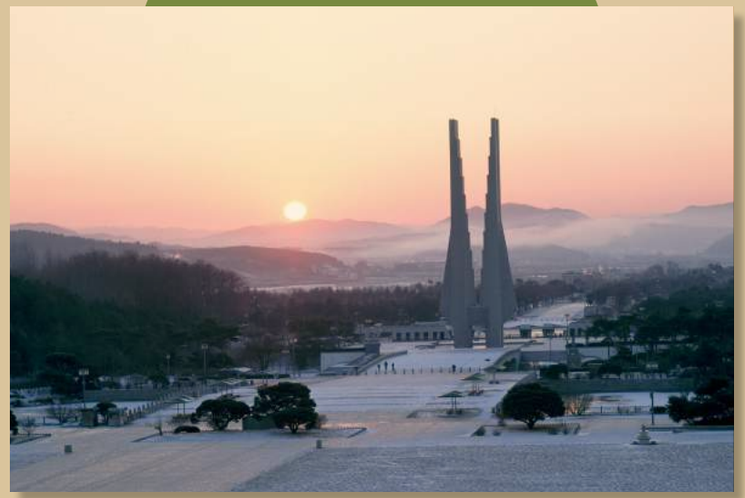
겨레의 탑



독립기념관의 겨레의 탑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걸친 영원불멸의 민족기상을 표상하고,
민족의 자주·자립 의지를 나타냅니다.

2020 JANUARY VOL.383
독립기념관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나의 소원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 김구

독립기념관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2020 January Vol. 383
01

독립기념관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2020 January Vol. 383

01

Coverstory

겨레의 탑 너머 스며든 새해의 빛이
독립기념관 전체를 밝히듯,
독립기념관은 2020년에도 역사의
빛으로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일러스트: 오현균 작가

※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독립기념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매품)
※ 월간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i815.or.kr

발간등록번호 11-B370008-000001-06
ISSN 1227-5883
등록일 1988년 3월 19일·천안라00001

발행일 2020년 1월 1일
발행처 독립기념관
발행인 이준식

편집인 신용관
편 집 신하윤(sunny@i815.or.kr)
편집위원 이봉근, 고명재, 구병준, 노지은, 박성섭, 염진일, 이선화, 이정희, 정경민, 허미애

시간의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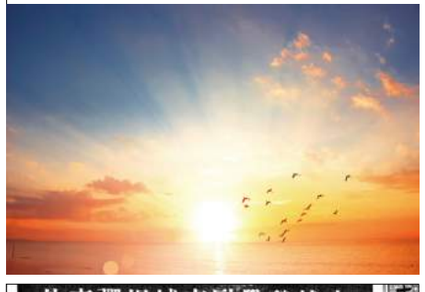
04 오늘을 여는 풍경
오늘,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06 신년사
지금부터 100년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08 영웅의 史물
김구가 안창호 목사에게
써 준 유묵

10 그때 그 역사
1930년대 조선에서 일어난
집념의 조선총독 처단 시도

14 밑줄을 긋다
한 명의 청년과 다섯 번의 도전



역사의 실마리

16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2020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

18 아름다운 인연
김순애, 김규식의
자유와 평화

22 이달의 독립운동가
고종의 밀지와 함께 의병을 일으킨
산남의진 대장 정용기

26 한국인의 터전: 미주 편
현순의 3·1운동 소식 전파와
대한인국민회의 대응

28 역사 바로알기
추억의 놀이와
일제 문화의 잔재

30 절체절명의 한국사
대제국 수나라,
살수에서 수장되다

세상의 발견

33 기념관 소풍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알려준
독립기념관

34 이 땅의 숨결
45일간의 짧은 전쟁 그 역사의 흔적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38 영화관에서 만난 역사
영화 <김복동>이 주는 교훈

40 타인의 취미
우리 집 안의 작은 숲
홈가드닝

42 일상 돋보기
어느 생선장수의 프로정신

44 아주 특별한 하루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함께하는 독립운동'

48 기념관 소식

오늘,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김구는 대답합니다.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독립이라고.
그는 식민지 조국의 현실 앞에서
간절히 독립을 소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는 일,
더 살 만한 내일을 그리는 일,
무릇 소원이란 나은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다른 말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올해, 오늘,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지금부터 100년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작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대한민국이 출범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나라 안팎에서 이를 기리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올해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해마다 8월 29일이 되면 국치의 아픔을 다시 새기면서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어디 독립운동가들뿐이었겠습니까? 일반 민중도 국치일을 잊지 않고 그 아픔을 되새겼습니다. 작년에 일본 아베 정권에 의해 시작된 경제 침략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강제병합 110주년은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올해는 또한 독립운동의 여러 방략 가운데 최고, 최후의 방략이라 평가받는 독립전쟁과 관련해서도 기억할 만한 해입니다. 강제병합 이전부터 나라 안팎에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항일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군'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무장투쟁, 곧 독립전쟁이었습니다.

독립전쟁이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해 독립군을 양성하는 한편, 독립을 이루는 데 필요한 실력을 쌓았다가 일본과 다른 나라(미국, 중국, 러시아 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를 기회로 일제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독립을 쟁취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강제병합 이전부터 싹트기 시작한 무장투쟁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선열이 독립군에 들어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남의 땅인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웠고, 더 많은 선열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음 해인 1920년에 들어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일제와의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것은 무력의 열세에서 비롯된 것이니 다시 일제와 독립전쟁을 벌여 승리를 거둠으로써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전쟁 원년 선포는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20년에는 만주의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과 전투를 벌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의병전쟁 이래 일본 정규군과의 전투에서 거둔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병력이나 화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이던 독립군이 거둔 두 승리는 이후 독립운동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봉오동전투나 청산리전투를 전후해 수많은 만주 독립군 부대가 한반도와 만주의 국경선인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국내로 들어와 군자금 모집,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한 뒤 정규군을 창설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의 땅 중국에서 '국군'을 창설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은 한 순간도 무력에 의한 일제와의 최후의 결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오랜 염원은 1940년 9월 한국광복군의 창군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출범한 한국광복군은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벌어진 독립군의 무장투쟁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임을 자임했습니다. 중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있었고 영국군이나 미군과의 합동작전도 펼쳤습니다. 한국광복군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에 선전포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국이 카이로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공인하게 된 배경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대일항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독립군에서 한국광복군으로 이어지는 무장투쟁은 독립운동사에서 더없이 귀중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우리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무장투쟁을 포함한 독립운동의 결과로 출범한 것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전사한 독립군의 전모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많은 독립군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독립전쟁 원년 선포 100주년,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을 기리는 올해는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무명'의 독립용사를 다시 기억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우리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무장투쟁을 포함한 독립운동의 결과로 출범한 것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구가 안창호 목사에게 써 준 유묵

39.50×166.00,
39.00×166.00
JANE C. Ahn 기증

66

安昌鎬先生雅正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回甲之日 於秦淮隱廣 書忠武公李舜臣詩一句 以作紀念
白凡金九

안창호 선생께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주네
회갑 날에 진회의 은거지에서 충무공 이순신의 시 한 구로 기념하다.
백범 김구

99

*진회: 중국 남경 시내를 흐르는 강

김구(金九, 1876~1949)가 중국 난징(南京)에 숨어살던 1936년에 자신의 환갑을 맞아 하와이에 있는 안창호(安昌鎬, 1885~1966) 목사에게 써서 보낸 휘호이다.

김구는 1932년 윤봉길 의거 후 일제 경찰의 추격을 피해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와 하이옌을 거쳐 난징에 은거했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의 행정수반인 국무령에 취임한 후 임정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미주동포들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정책'을 펼쳤다. 임정의 상황을 설명하고 동정을 구하는 진심 어린 편지에 미주동포들은 감동하여 회답을 보내왔다.

1936년 난징에서 환갑을 맞이한 김구는 임정의 활동을 지원해 준 미주동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의 시 한 구절을 써서 보냈다.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지은 「진중음(陣中吟)」 8구(天步西門遠 君儲北地危 孤臣憂國日 壯士樹勳時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讐夷如盡滅 雖死不爲辭) 중 2구이다. 이순신이 소장했던 쌍룡검(雙龍劒)의 칼날에 새겨진 명문 중에도 "盟山誓海意(산에 맹세하고 바다에 맹세하다)"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한다.

글 윤소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장

1930년대 조선에서 일어난 집념의 조선총독 처단 시도

조안득의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 처단 의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료들은 남산에 있는 조선신궁에 참배하여 새해를 맞이했다. 1936년 1월 1일, 이 날을 이용하여 당시 제6대 조선총독으로 있었던 우가키 가즈시게를 처단하려 했던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조안득. 그러나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2020년의 새해를 맞이하며, 조안득의 독립운동 족적을 따라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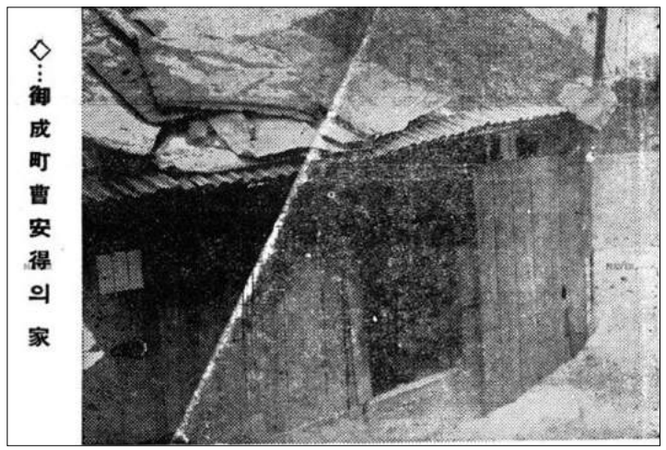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한국 침략의 수장을 노린 의열투쟁의 계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피탈을 저지하지 못하고 중과부적인 상황에서 한국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방식 중 하나가 의열투쟁이었다. 그중 한국 침략의 수장인 일제의 최고 고관을 목표로 한 의열투쟁은 1909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 의거와 함께 1919년 사이토 마코토 총독 처단을 기도한 강우규 의거, 1926년 송학선의 사이토 마코토 총독 처단 미수 의거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어떠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1930년대 중반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끝을 모르는 군국주의적 팽창 도발로 탄압과 통제가 극심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립운동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935년 국내에서 또 한 번의 조선총독 처단 의열투쟁이 일어났다. 그것도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시도되었다. 그 무대는 고양군 신공덕리 58번지에 있던 용일양조소로, 처단 대상은 제6대 총독인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1868~1956)였다. 거사를 주도한 인물은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태어나 '식민지 교육'을 받은 가난한 하층민 청년 조안득이었다. 그는 1925년 치안유지법 제정 후 더욱 촘촘해진 일제의 사찰망에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다.

조안득 의거의 처단 대상이었던 제6대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

조안득이 살았던 어성정의 집



1930년대 조선과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는 1890년 육군사관학교를 제1기생으로 졸업하고 1924년 육군 대신에 취임했다. 1927년 정우회 정권이 수립되자 육군 대신을 사직하고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대신하여 임시총독대리로 조선에 부임했다. 재임 기간은 1927년 4월부터 1927년 10월까지 사이토 총독이 워싱턴군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간 사이였다. 우가키의 정치 성향은 일본의 군인칙유에 명시된 것처럼 일왕에 대한 절대복종이었다. 그는 메이지유신 이래 조슈군벌 세력이 일본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비판적이었는데, '천황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일본군 내부의 우익 청년 장교들은 이러한 성향의 우가키를 내각 총리로 추대하여 1931년 3월 20일 이른바 '3월사건'이라 불리는 쿠데타를 모의한 적도 있다. 이런 와중에 우가키는 일본 내의 구설수를 피해 조선총독직을 수락하고 1931년부터 1936년까지 제6대 총독에 재임하게 된 것이다.

당시 국내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전국적인 확산과 1930년 1월 부산 방직공장 노동자 파업, 1930년 8월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 파업이 일어나고,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의 산하단체가 증가하는 등 대중단체운동이 격화했다. 1931년부터 1935년까지 혁명적 농업조합운동 관련 사건은 103건(4,121명), 혁명적 노동조합사건은 70건(1,759명)에 달했다.

당시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는 법적 장치는 치안유지법이었다. 이에 따르면 조선독립을 기도하는 운동은 조선에 대한 일본 지배를 배제하는 것이며, '천황통치권' 하의 제국영토의 일부를 그 통치권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므로 '정치의 변혁'(제령 제7호), '국체변혁'(치안유지법)에 해당한다"고 하여 탄압했다. 법은 1928년 6월 29일 개정되어, 국체변혁과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에게 최고형 사형이 구형되도록 했다. 1930년대 전반의 독립운동은 사형을 각오한 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우가키는 부임 전, 조선의 상황에 대해 관계는 침체되어 있고, 인민은 음울하며 사업은 부진한 상황이라 진단했다. 이 공기를 일신하지 않으면 조선의 장래는 낙관할 수 없다고 일기에 적었다.(『宇垣一成日記』 2, 1931.06.25.) 그래서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내선융화', '농공병진', '농촌진흥'이다. 그렇지만 정책적 효과는 미미했다.

1930년대 전반 조선의 상황은 불경기와 실업자 증가, 토막민 증가로 요약된다. 『조선급만주』 1933년 1월호 「조선에 소용돌이치는 실업자 무리」 기사에 따르면 경기불황에 디플레이션이 가중되어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실업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안득 의거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졌을까

조안득 의거 사건이 발각된 계기는 1935년 말, 용산경찰서 형사가 용일양조소 부근 이발소에서 어떤 이가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용일양조소의 노동자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인물을 특정하지 못하고 요시찰 인물 중에서도 의심 가는 이가 없어 속수무책이던 일경은 1935년 12월 28일 얼굴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조안득(조득렬) 외 6명을 우가키 암살 미수사건으로 체포했다. 일경 측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즉시 보도 통제를 단행했다.

사건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1936년 8월 18일 자 신문을 통해서다. 우가키 총독이 이임하고 관련 보도 금지가 해금되었기 때문이다. 『경성일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이 기사를 게재했지만,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동아일보』의 2면에 걸친 상세한 호외이다. 조안득을 비롯한 관련 인물의 사진과 조안득의 부인, 조안득의 주거, 용일양조소 사진 등 관련 사진이 풍부하게 활용된 기사였다. 다른 신문사와 달리 이 같은 자세한 보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취재기자였던 우승규(禹昇圭)의 활약 덕분이다. 우승규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년당원으로 활동하다가 1931년 귀국하여 여러 신문사의 기자를 전전했다. 그 자신이 일제 요주의 인물로서 사찰 받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우승규는 용산경찰서를 출입하다 우연히 조안득의 검거 소식을 듣고, 자비를 들여 조안득의 조선총독암살미수사건을 조사했다. 우승규 기자의 활

약으로 밝혀진 조안득과 그의 거사 내용은 이랬다.

東亞日報 號外

未然發覺된京城爆彈事件

爆發彈을秘密製造 總督等大官暗殺計劃

昨年末에縱露 龍山署에被檢

一團七名은 檢事局에

關係犯人七名

主犯은曺安得

議謀本據는釀造支店

赤色兩名은事件에關聯

謀事前後五次 自身도爆死를覺悟

戰慄할計劃의顚末

制令七條違反等 四大罪名으로送局

爆彈은四個 製造하던經路

우승규가 취재·보도한 조안득 의거 기사(『동아일보』, 1936.08.18.)

평범한 청년과 의열운동가 사이

조안득은 수원에서 과부의 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30년대 초 가족 모두가 서울로 이사 와서 큰형 수복은 간장 회사 영업사원으로, 둘째 형 천복은 지방행정학회 인쇄 직공으로, 조안득은 용일양조소 배달부로 일했다. 그러나 경제 불황의 여파로 두 형 모두 실직하고 말았다. 조안득이 홀어머니와 조카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그의 아내 서금순(徐今順, 당시 19세)은 일본인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했다. 『동아일보』에 실린 조안득의 어성정(御成町)의 집 또한 여러 개의 쪽방으로 이루어진 보잘것없는 주택의 한 칸에 불과했다. 조안득과 그 가족의 삶은 1930년대 전반기 '식민지 조선'의 비참함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다.

조안득은 안중근 의거와 송학선 의거를 염두에 두고 우가키 총독 처단 의거를 준비했다. 그는 용일양조소의 수석 서기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금진으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으면서도 점진적인 노동운동보다 급진적인 의열투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일제 측 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안득이 1935년 9월경, 조선신궁이 있는 남산에서 조선인 거리와 대비되는 휘황찬란한 일본인 거리를 내려다보고 한층 더 조선통치에 반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하얼빈 역두에서 이등공을 암살한 안중근을 모범으로' 삼아 폭발물을 사용하여 조선총독 처단을 결심하게 되었다.

먼저 용일양조소의 술을 배달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인진명(47)에게 물고기를 잡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여 다이너마이트와 도화선을 요청했다. 인진명은 중석광산(重石鑛山)의 화약취급 주임이었다. 이에 인진명은 성냥의 유황으로 간단한 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조안득은 유리병을 활용해 10월 말경까지 총 4개의 폭탄을 제조했다. 유리병은 아내 서금순이 일본인 가정에서 얻어온 빈 병을 재활용한 것이었다.

조안득은 총 다섯 차례 총독 처단을 시도했다. 첫 번째로 1935년 10월 14일 대구에서 열린 조선군사단 대항연습을 참관하고 경성역으로 돌아오는 우가키 총독의 처단을 계획했으나 인진명에게 도화선을 받지 못해 미처 시도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1935년 10월 16일, 총독부 고관들이 동대문 밖을 통해 이동한다는 이야길 듣고 실행에 옮기려다 경계가 심해 실패했다. 세 번째는 11월 18일 도쿄에 갔다가 귀성하는 우가키 총독을 노렸다. 이때 그는 사전에 용일양조소 배달부 최영진(30), 서부지점 배달부 구승회(26) 및 윤학수(28)를 동지로 포섭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폭탄을 갖고 경성역에 잠복하면서 귀빈실을 지켜봤다. 그러나 총독의 부인이 병환 중이어서 직접 플랫폼에서 자동차를 타고 철도우편국 옆 수하물 출입구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실패했다. 다시 12월 14일, 신문에서 우가키 총독이 오후 2시 52분 온양온천에서 경성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본 조안득은 두 번째로 만든 폭탄 세 개를 가지고 경성역으로 갔다. 그리고 남대문통 세브란스병원 통용문 철책 부근 보도 위에 서서 폭탄을 던질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안개가 심하고 경계가 삼엄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계속되는 실패로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 생각한 그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1936년 1월 1일, 총독이 반드시 남산 조선신궁을 참배할 것이라 보고, 자신의 집 위에 있는 조선신궁 가는 길에서 의거를 결행하기로 한 것이다. 신궁 가는 길 어귀에서 실패할 경우, 인근 잔디밭에 불을 지르고 경계망이 어지러워질 즈음에 기어코 총독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12월 28일 새벽에 체포되고 만 것이다.

일제 당국은 조안득의 폭탄을 압수해 그 위력을 실험했는데, 폭탄은 10간 정도의 범위까지 파멸시킬 정도로 강력했다. 조안득은 10년 형을 받았다가 다시 7년 6월형으로 감형받았다. 그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주목할 만하다.

다시 옥문에서 나온 그들에게 현실은 너무나 차디차서 '처'는 간데없고 생계는 막연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경찰의 감시는 아직도 거세었다. 하는 수 없이 조안득 씨는 해방 전 해 노무자 모집에 응모하여 북해도로 건너가 왜놈의 노예로서 철도부설공사를 비롯하여 자유 노동에 종사하다가 1945년 11월에 그리운 고국으로 다시 찾아왔다. …(중략)… 해방이 와도 장안에 떠나갈 것 같은 만세와 환호성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누구 하나 그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생활의 곤경은 예나 이제나 다름없이 궁핍했다. (「여기에 있다. 버림받은 애국자」, 『한성일보』, 1950.06.03.)

조안득은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감옥살이를 한 뒤 세상으로 나왔지만, 일제의 감시망 속에서 1944년에 홋카이도 철도노동자로 전전하다 기사의 제목처럼 '버림받은 애국자'로 해방을 맞이했다. 기자가 소감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지시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곤란한 생활은 왜놈 때문이라는 복받치는 반감 그대로 27세 내외의 젊은 청년끼리 거사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다만 옛일을 회상하면서 평생을 묵묵히 노동자로서 조국에 바칠 뿐입니다. 생활고요? 그야 나만이 못 뚫는 수난인가요. 다수의 동포 형제들이 참고 참아 나가야할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술회는 우리에게 깊은 감회를 남긴다. 조안득은 '정의'를 '맹렬하게' 실천한 의열운동가였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의거'라 주장하지 않았고, 공을 다투지도 않았다. 역사가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음에 섭섭해하지도 않았다. 단지 역사의 불의에 눈감지 않고 의로움을 실천한, 그 자신은 평범하다고 했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청년이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가 많다. 조안득의 의거가 안중근 의거, 강우규 의거, 송학선 의거를 잇는 일제 고관 처단의 '의열투쟁'임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은 오롯이 우리 국민의 몫이다.

조안득이 제작한 폭탄 이미지

한 명의 청년과 다섯 번의 도전

조안득 의거

1935년, 용일양조소 노동자인 조안득이 일제에 대한 반감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 처단을 시도한 사건

독립운동가 조안득 (1910.11.16.~1961.06.15.)

- 수원에서 과부의 세 아들 중 막내로 출생
- 수원공립보통학교에서 4년간 수학 후 인쇄소 취직
- 1930년대 초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한 뒤 용일양조소 배달부로 취직
- 1935년 조선인 거리와 대비되는 화려한 일본인 거리를 보며 일본에 대한 반감 극대화
- 1935년 10월부터 12월에 걸쳐 다섯 번의 폭탄 의거 계획 수립
- 의거를 앞두고 1935년 12월 28일 발각되어 체포
- 1940년경 출옥하여 홋카이도 탄광에서 일하다 1945년 11월 귀국

조안득의 다섯 번의 의거 계획

1935.10.14.
대구에서 조선군사단 대항연습을 참관하고 경성역으로 돌아오는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의 처단을 계획했으나 도화선 장치를 입수하지 못해 실패

1935.10.16.
동대문 밖으로 이동하는 총독부 고관들의 처단을 계획했으나 경계가 심해 실패

1935.11.18.
용일양조소 배달부 최영진, 구승회, 윤학수의 도움을 받아 경성역에 잠복.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이 열차 플랫폼에서 곧바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실패

조안득

조안득의 아내 서금순

조안득이 일했던 용일양조소

1935.12.14.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이 오후 2시 52분 경성역에 도착한다는 기사를 보고 4차 의거 계획. 세브란스병원 통용문 철책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안개와 삼엄한 경계로 인해 실패

1936.01.01.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이 신년에 남산 조선신궁을 참배할 것이라 생각하고 조선신궁으로 향하는 길에서 처단할 계획을 세웠으나, 용일양조소 노동자 중 폭탄을 가진 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일제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1935년 12월 28일 체포

숫자로 정리하는 조안득 의거

1일

조안득은 총 다섯 번의 의거를 계획했다. 그중 마지막 다섯 번째 의거는 1936년의 첫날인 1월 1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의거 실행 4일 전 체포되었다.

제6대

조안득이 의거를 통해 처단하고자 했던 대상은 제6대 조선총독인 우가키 가즈시게이다. 우가키 가즈시게는 1931년부터 1936년까지 조선총독으로 있었다.

7명

1935년 12월 28일 일본은 조안득을 포함한 7명을 체포했다. 조안득 외 6인의 공모자는 조아각, 인진명, 최영진, 윤흥회, 구승회, 이금진이다.

27세

일본에 붙잡혀 1936년 재판을 받을 당시 조안득의 나이는 27세. 조안득의 의거 계획에 가담한 인물들 또한 40대인 인진명을 제외하면 20대 청년들이었다.

8월

일본은 조안득 체포 직후 보도통제를 단행했다. 그 때문에 해당 사건은 6개월도 더 지난 1936년 8월 18일에야 신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특히 『동아일보』의 우승규 기자가 투혼을 발휘한 취재로 조안득 의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질 수 있었다.

글 이계형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2020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

1945년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았지만,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미완으로 남은 사건, 해결되지 못한 문제, 기억해야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사를 과거에 머문 역사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다루며, 오늘도 신문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독립운동 및 일제강점 이슈를 소개한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다. 이를 맞아 정부 차원에서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여러 행사를 총괄 추진하였고, 지자체 혹은 여러 기관에서도 기념행사나 특별전을 개최하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또 관련한 사적지에 기념물·조형물 등이 새롭게 조성되기도 하였다. 3·1운동은 일제 식민 통치 10년 만에 전 인민이 한마음으로 항거한 독립운동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현재 대한민국 법통성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쉬운 부분도 남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100년'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기로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다만 '100주년' 행사 중에서 잘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전자는 활성화해야 하고 후자는 채워 넣어야 한다. 앞으로 독립운동과 관련한 100주년 행사가 줄을 이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과 같이 정부가 적극 나설 정도로 규모가 큰 정도는 아닐지라도 말이다. 어쨌든 큰 행사를 치른 만큼 명암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기획부터 시행까지 이뤄진 사업이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100주년 사업의 목적이 모든 국민이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기리는데 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지자체의 행사는 규모가 확대되었을 뿐, 새로운 부분이 적었다. 이를 지역의 화합 차원으로 승화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즈음 건설된 신도시에는 고향이 다른 수많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소속감이나 지역공동체 의식이 적다. 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자랑스러운 지역사이다. 지역사를 어떻게 기리고 보존하며, 자랑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는 더 단단해진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줄을 이었을 것이다. 또한, 비슷한 지자체 행사에 차별화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가려 100주년을 맞이한 다른 독립운동이 소외된 경우도 있었다. 우선 3·1운동 이후 만주에는 수많은 독립군이 조직되어 활동했지만, 이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2·8독립선언, 신흥무관학교 개교, 민족대표 양한묵 순국, 강우규 의거, 안중근 의거 110주년 행사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얻지 못했다.

돌아오는 100주년,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할 것인가

2020년을 맞아 올해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 이야기를 통해 앞선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봉오동(1920.06.)과 청산리전투(1920.10.)가 100주년을 맞이한다. 3·1운동 후 만주에서 조직되었던 50여 개의 독립군이 연합해 국내진공작전을 벌이는가 하면, 임시정부가 선포한 '독립전쟁의 해'를 맞아 독립군이 정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에 대해서 그 역사적 가치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예년처럼 두 영웅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행사나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홍범도와 김좌진은 알고 있지만, 봉오동전투에서 봉오동을 일군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여러 독립군 단체가 연합하여 승리한 전투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

이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봉오동·청산리전투 전후 일제가 보복 차원에서 1921년 4월까지 만주 한인 마을을 방화·약탈하고 한인들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서 아는 이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1920년 10월과 11월, 두 달 사이에만 약 3,600여 명이 학살당했고 150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가옥 3,500여 채, 학교 60여 개소, 교회 20여 개소 및 양곡 6만여 석이 소각되었음에도 말이다. 이를 '간도참변', '간도대학살', '경신참변'이라 한다.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정부 예산을 받아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거라 기대하면서도 예전과 같이 특정인을 기리는 행사를 지양하기를 바란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두 전투의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립군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다가 희생당한 이들도 기억해야 한다. 개별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통합하여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이외에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중국과의 관계로 봉오동과 청산리 전적지에 접근조차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 기념 시설도 방치되어 있다. 중국과의 외교적 채널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간도참변'에서 희생당한 이들의 추모비 건립도 추진했으면 한다.

2020년에 '100년'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 인물로는 최재형이 있다. 그는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활동하다가 일본군의 '4월참변'에 총살로 희생당했다. 유관순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했고, 사이토 총독을 폭살하려던 강우규는 순국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의병장 채응언 의진에서 활동했던 안광조는 평양형무소에서 사형 순국했다. 군자금 모금·친일관리 처단 등의 활동을 펼친 대한독립단 특파대장 이명서는 전사 순국했다. 『동아일보』 장덕준 기자는 만주의 훈춘사건 취재 중 간도 용정에서 일본 경찰에 피살되었다. 이들을 기리는 데는 업적의 크고 작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의 모티브가 되었던 철혈광복단의 '15만 원 탈취 사건'도 어느덧 100년이 되었다.

100년이 된 단체, 기관도 있다. 대한체육회(옛 조선체육회)·대한정구협회(옛 조선정구협회)의 설립이 그러하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도 1920년에 창간되어 일제강점기에 민족지로서 역할했다. 3·1운동의 실패로 인한 실망과 궁핍한 삶에 불안 등 퇴폐적인 상황 속에서 탄생한 『폐허』와 민족의식 고취에 역점을 둔 대표적인 종합잡지 『개벽』의 창간도 100년이 되었다.

어느 사건이나 단체이든지 '100년'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이다. 다만 기려야 할 것인지 반성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의 판단이고 몫일 것이다. 더불어 2020년은 일제에 의해 식민지가 된 지 110년이 되는 해이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왜, 어떻게 그리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질책, 비판이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독립운동과 관련한 인물, 사건 단체 등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시 돌아오는 100년 후의 중요한 역사가 될 것이다. 독립운동사는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교훈이 되어야 하고 독립운동가들은 영원히 기려야 할 선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폈지만 올해에는 감옥에서, 사형장에서, 전장에서 숨을 거둔 독립운동가의 순국 100년이 많다. 이들 가운데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거나 기념사업회가 없어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기려지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2019년 의미 있게 100주년을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잊힌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2020년 올 한 해가 그 시험대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가 독립된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숭고했던 100년 전 희생의 역사 덕분이며, 돌아올 100년 후 내 후손이 살아갈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는 지금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글 김형목 사단법인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이사

김순애, 김규식의 자유와 평화

최근 들어 남북한 사이 화해 분위기가 다시 경색되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던 선각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이 절실한 오늘날이다. 김순애와 김규식은 평생 독립운동에 스스럼없이 온몸을 던졌던 선각자들이다. 해방 이후에는 남북분단 체제를 막는 것만이 진정한 독립이라 생각하고 실천하였다. 이들 부부가 살아온 가시밭길 같은 인생 항로는 무한한 신뢰에서 가능했다.

김순애와 김규식의 결혼사진(1919)

김순애, 근대교육 수혜로 민족의식을 일깨우다

김순애는 1889년 5월 12일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에서 아버지 김성섬과 어머니 안성은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광산으로 서울의 명문가 집안이었다. 증조부는 낙향 후 황무지 개간과 가축 사육 등으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여 '김참판댁'이라 불렸다. 아버지도 '만석꾼'이라 불릴만큼 대단한 자산가였다. 일찍이 서양선교사와 인연을 맺은 서상륜·서경조 형제는 이곳에 개신교를 전파했다. 이때 그의 아버지와 큰오빠도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마을에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는 등 민중계몽과 민족교육에 매진하였다.

김순애는 고향에서 초등교육을 받은 뒤 어머니, 오빠 김필순과 함께 서울로 가서 정신여학교에 입학하였다. 김필순은 세브란스의학교에 다니며 안창호를 비롯한 많은 애국지사와 밀접하게 교류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민족의식과 현실 인식을 심화하며 자연스럽게 나라사랑 정신을 형성하였다. 민족교육의 수혜로, 김순애의 집안은 독립운동가를 다수 배출한 명문가로 자리매김하였다. 둘째 오빠 김윤오는 서우학회 발기인, 셋째 오빠 김필순은 중국 동북지역과 내몽고 치치하얼에서 독립운동자금 및 기지를 제공했다. 언니 김구례의 남편 서병호는 신한청년단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여동생 김필례는 YWCA 창설자이자 민족교육을 실천한 교육운동가, 조카 김마리아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장 등을 역임한 여성독립운동가이다.

정신여학교(연동여학교 후신)는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근대여성교육의 '메카'였다. 한국 역사와 지리 등을 통해 나라를 생각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성을 양성시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갖게 되었다. 엄격한 기숙사 생활에도 동생 김필례와 함께 있어 그 어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김순애는 1909년 졸업하고 부산 초량소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비밀리에 가르치는 등 항일의식 고취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탐지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오빠 김필순과 함께 중국 동북지역으로 망명했다.

젊은 시절의 김순애

김규식, 불우한 가정환경을 나라사랑으로 이겨내다

우사 김규식은 1881년 아버지 김지성과 어머니 경주 이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경남 동래부에서 무역 업무를 담당한 아버지는 일본 상인의 횡포를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유배형에 처해졌다. 4세가 되던 해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으나, 얼마 후 어머니마저 사망하여 큰아버지에게 맡겨졌다. 큰아버지는 김규식의 양육이 어려워지자 그를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의 양자로 입양시켰다. 이후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가 연이어 사망하며 천애 고아 신세가 되고 말았다. 선교사 부부는 김규식에게 친아들과 같은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다. 그 역시 불우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관립영어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등 학문적인 열정을 보였다.

생계를 위해 독립신문사에 입사한 뒤 영어사무원과 취재기자로 활동하였다. 이어 언더우드의 도움으로 미국 로녹대학에서 유학하며,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을 알리는 많은 기고문을 썼다. 특히 영어·프랑스어·라틴어 등 어학에서 출중한 실력을 발휘했다. 러일전쟁의 발발과 일본의 승리를 예견할 만큼 국제정세에도 밝았다. 프린스턴대학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고, 러일전쟁이 발발한 직후 귀국하였다. 그리고 YMCA학관·배재학당·경신학교 등 기독교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항일의식을 일깨웠다. 김규식은 교육가로서뿐만 아니라 국권회복을 위한 계몽활동도 병행하는 '청년운동가'로서 명성을 날렸다.

'105인사건'으로 국내 활동이 여의치 않자 1913년 상하이로 망명했다. 12월에는 신규식과 박달학원을 설립하여 한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이듬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즈음하여 몽골 울란바토르에 군관학교 설립을 계획했다. 설립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했다. 국내에 있던 아내가 외몽골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폐병으로 사망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1917년 7월에는 김성(金成)이라

는 이름으로 '대동단결선언'에 참여하며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과 단결을 촉구하였다. 김규식은 독립운동가로서 다양한 이명을 사용하기로도 유명하다.

영원한 동반자 김규식과 부부가 되다

한편 김순애는 상하이를 거쳐 난징 명덕여자학원에서 수학했다. 재학 중 형부 서병호의 중매로 평생 동지가 될 김규식과 1919년 1월 조촐한 결혼식을 치렀다. 김규식은 김순애의 오빠 김필순과 막역한 친구이자 동지이기도 했다. 망명지에서의 결혼은 운명적이나 뜻을 같이하는 동지적 결합을 의미한다. 김순애는 곧장 김규식과 상하이로 근거지를 옮겨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국제정세는 요동쳤다. 여운형·조소앙·김철 등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한청년단을 조직하였다. 부부는 망설이지 않고 가입하여 직접 활동에 나섰다. 이때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신한청년단은 강화회의 파견 대표로 김규식을 선정하였다. 파견 목적은 일제 식민지 통치 실상의 폭로와 한민족 독립 염원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데 있었다.

상하이 부두에서 신혼부부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별 아닌 이별을 했다. 동시에 김순애는 선우혁·김철 등과 국내로 파견되어 대대적인 독립운동 전개와 독립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1919년 2월 부산에 도착하여 백신영, 대구에서 김마리아, 광주에서 김필례, 서울에서 함태영, 평양에서 김애희(송죽결사대 김경희의 동생) 등을 만나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를 파견한 소식을 전하였다. 또한 이에 호응하는 방안으로써 한국인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리는 독립운동을 펼치도록 요청했다.

파리평화회의에 파견된 대표단. 앞줄 오른쪽 끝이 김규식(1919)

자신의 임무에 혼신을 다하다

김순애는 함태영으로부터 이미 종교계를 중심으로 3·1운동이 계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다 잘못되면 파리에 있는 김규식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민족 대업 완수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3·1운동을 목전에 두고 오빠가 있는 헤이룽장성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만세시위를 추진하다가 일본영사관에 감금되었으나, 중국인 관원의 도움을 받아 상하이로 무사히 탈출했다.

김순애는 조국독립에 여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화숙·이선실·오의순·박인선 등과 함께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했다. 회장으로 피선된 그녀는 선전활동과 독립자금 모금에 전력을 기울였다. 또한 서병호·이희경·안창호 등과 대한적십자사를 조직하여 독립전쟁에 시급한 현안인 간호원 양성과 임시정부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듬해 부설기관인 간호원양성소에서 간호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순애는 김규식이 파리로 떠난 후 그의 장남인 김진동을 장자커우에서 데려와 정성을 다해 양육하며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한편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참석한 김규식은 파리한국통신부를 개설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외무총장으로서 한국독립에 관한 청원서와 「한국독립과 평화」라는 홍보물 등을 배포했다. 이러한 대표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인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김규식은 파리주재 외교관을 초청하여 한국인의 독립 열망을 알렸다. 그러나 결국 파리위원부 임무를 이관룡에게 위임하고 미국을 거쳐 상하이로 되돌아왔다. 미국에서는 순회강연회 등을 통해 막대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애국부인회 회원들. 왼쪽부터 최선화, 김현주, 김순애, 권기옥, 방순희(1943)

국제관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다

김규식은 태평양회의와 극동피압박민족대회 대표 파견에 적극적이었다. 민족대회에는 총 144명이 참가하였는데, 이중 한국인이 50여 명이나 되었다. 김규식은 레닌을 만나 한국독립운동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레닌 사망과 국제정세 변화로 성공하지 못했다. 한중호조사 창립 2주년 즈음하여 「3·1정신과 5·4운동정신」을 발행해 한중 연대를 강조하였다.

김순애는 중국에서 효과적인 독립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연대가 중요함을 알고, 실천하였다. 직접 중국인학교를 찾아가 한중문제를 연설하는 등 중국인 청소년에게 한국이 처한 현실을 널리 알렸다. 1930년대 한중 연대는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미국의원단 방문 시에는 한국부인회를 대표해 한국독립을 호소하였다.

다나카저격미수사건으로 상하이에서 미국인 스나이더 부인이 유탄에 맞아 사망하는 유감천만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임시정부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는 불상사였으나, 김순애는 영문으로 간절한 애도의 뜻과 함께 기념품을 스나이더에게 전달했다. 스나이더는 "고상하고 혁혁한 귀회의 결의를 나는 늘 기억할 것이며, 이를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귀회에 대하여 감사해 마지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왔다. 가해자에게 호의와 감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외교적 수완은 독립운동사에서 찬란한 빛을 발했다.

대동단결만이 독립운동의 초석이다

임시정부는 운동노선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민족유일당운동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분열되었다. 김규식은 이념적인 대립을 뛰어넘어 대동단결을 호소했다. 1935년 난징에서 민족통일전선의 5당 통합인 민족혁명당 창당은 그의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충칭에 안착한 후 김구와 김원봉은 좌우 통합에 합의하여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연대와 통합이 이루어졌다. 쓰촨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김규식은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이어 민족혁명당 중앙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되었으며, 임시정부 부주석에 취임함으로써 대통합에 성공했다. 이러한 노력은 일제 패망과 함께 해방을 맞이하는 에너지원이 되었다.

김순애는 분열된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위해 대한애국부인회 회장을 사임하고 남편과 같이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1930년 한국독립당 산하 한인여자청년동맹 결성이나 1943년 한국애국부인회 재건 등은 이러한 목적을 관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대동단결이 독립운동의 가장 견고한 기반임을 거듭 밝혔다. 「자유한인대회 선언문」에서는 "한국은 마땅히 독립국이 되어야 하고 한민족은 마땅히 자유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부부의 염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완전한 자유와 평화에 있었다.

글 독립기념관 전시부

고종의 밀지와 함께 의병을 일으킨 산남의진 대장 정용기

정용기(鄭鏞基)
1862.12.13. ~ 1907.09.02.
경상북도 영천
건국훈장 독립장(1962)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 및 광복회와 공동으로 정용기를 2020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정용기는 경상북도 영천에서 의병 부대 '산남의진'을 조직하여 일본군과 맞서 싸우며 항쟁했다.

고종황제의 뜻을 받들어 의병을 일으키다

정용기는 1862년 충절가문으로 알려진 영일정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는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다녀야 했지만, 1887년 아버지 정환직(鄭煥直)이 벼슬에 오르자 함께 상경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되며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하자 고종은 정환직을 불러, 군주를 대신하여 장수가 적에게 맞선 중국 고사 '화천지수(華泉之水)'에 대해 이야기하며 밀지(密旨)를 내렸다. 이후 정환직이 관직에서 물러나자 정용기도 함께 의병을 일으킬 준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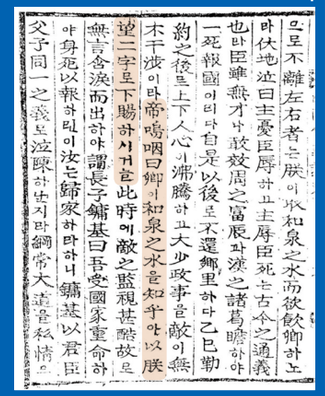
1906년 영천으로 간 정용기는 영천창의소를 설치하여 의병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권세가를 비롯한 각종 통문이나 격려문을 지어 의병으로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같은 해 2월 정용기는 의병 1,000여 명의 추대로 의병 대장이 되었고, 영남지역 의진이라는 뜻의 '산남의진(山南義陣)'을 이름으로 정하여 본격적인 항쟁을 준비하였다.

산남의진 대장으로 의병투쟁을 이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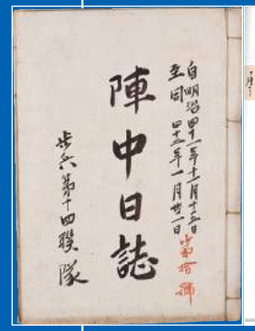
1906년 4월 아버지 정환직이 경주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정용기는 급히 경주로 향했지만, 이는 산남의진을 막기 위한 관군의 계략이었다. 결국 정용기는 경주진위대에 체포되어 대구경무소에 구금되었고, 대장을 잃은 산남의진은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산되었다. 4개월이 지나서야 풀려난 정용기는 '일제가 만든 외채를 국민의 손으로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여 영천군 국채보상단연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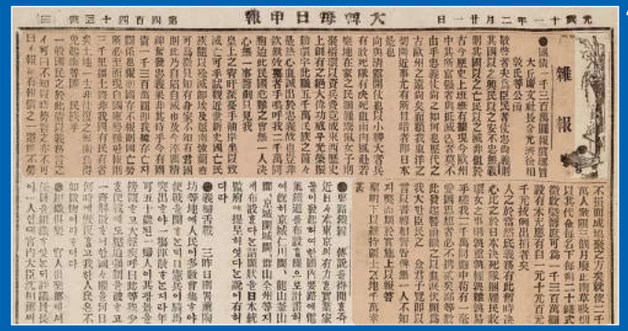
1907년 봄 정용기는 산남의진을 다시 조직하였고, 소규모 지역 의병부터 군인 출신까지 많은 이들이 뜻을 함께하였다.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산남의진은 포항 청하와 영천 자양 등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9월 포항 죽장으로 이동하여 입암계곡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일본군에게 역습을 당해 정용기를 비롯한 많은 의병이 전사하고 말았다. 정부는 정용기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鄭鏞基


1

2


3


4

5

6

1 『산남창의지(山南倡義誌)』 중 정환직이 고종에게 밀지를 받는 부분
2 의병의 무기들
3 『진중일지』 중 입암전투 관련 내용
4 국채보상운동 관련 내용(『대한매일신보』 1907.02.21.)
5 짐망화천지수(朕望華泉之水)전세비
6 충효재(忠孝齋)

그림 박진수 작가

고종의 밀지와 함께 의병을 일으킨 산남의진 대장 정용기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되며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당하자 고종은 정환직을 불러, 군주를 대신하여 장수가 적에게 맞선 중국 고사 '화천지수'에 대해 이야기하며 밀지를 내렸다. 이후 정환직은 관직에서 물러나고 의병을 일으킬 준비를 했다.

정용기는 아버지 정환직의 계획을 듣고 함께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환직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정용기는 허락을 받기 위해 사흘 밤낮을 간청했다. 결국 정용기는 승낙을 받고, 의병을 모으기 위해 영천으로 향했다.

1906년 영천으로 간 정용기는 영천창의소를 설치하여 의병을 모으기 시작했고, 권세가를 비롯한 각종 통문이나 격려문을 지어 의병으로 나설 것을 호소했다.
같은 해 3월 정용기는 의병 1,000여 명의 추대로 의병 대장이 되었고, 영남지역 의진이란 뜻의 '산남의진'을 일으켰다.

1906년 4월 아버지 정환직이 경주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정용기는 급히 경주로 향했지만, 이는 산남의진을 막기 위한 관군의 계략이었다. 결국 정용기는 경주진위대에 체포되어 대구경무소에 구금되었고, 산남의진은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4개월이 지나서야 풀려난 정용기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며 영천군 국채보상단연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1907년 산남의진을 다시 조직하였고,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포항 청하와 영천 자양 등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1907년 9월 정용기는 청하군 죽장면 입암으로 이동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 역습을 당해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이후 아버지 정환직이 의병부대를 수습하여 이끌었다. 정부에서는 정용기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글 홍선표 나라역사연구소 소장

현순의 3·1운동 소식 전파와 대한인국민회의 대응

Ⅲ. 3·1운동의 발발과 재미 한인의 독립운동 ①

1919년에 들어서 재미 한인의 독립운동 열기는 계속 고조되었으나 파리강화회의에 한인 대표로 이승만과 정한경을 파견하는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파리강화회의 대표 파견 추진활동에 대한 세부 내용은 중앙총회에만 알리고 전 미주 한인들에게는 비밀로 하였다. 파리행 전망이 처음부터 모호한 상황에서 일일이 전 미주 한인들에게 알릴 때 혹 실망감으로 독립운동의 열기가 냉각될지 모를 우려 때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San Francisco Examiner* 3월 3일 자 보도로 이승만·정한경의 여권 신청이 미 국무부로부터 거절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동안 비공개로 일관했던 중앙총회는 더 이상 추진 과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두고 무척 난감해했다. 크게 고조된 독립운동의 열기가 급속히 냉각될 것이 분명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3월 9일 상하이에서 현순의 전보가 중앙총회와 하와이지방총회에 내도하였다.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3·1운동의 발발과 중앙총회의 활동방침

국내 3·1운동의 발발 소식은 미주 한인사회를 진동시켰다. 3·1운동 소식을 정리해 보도한 『신한민보』 3월 13일 자 「호외」는 "장쾌하여도 이렇게 장쾌하고 신기하여도 이렇게 신기한 일은 진실로 무엇에 비할 데 없으니 기쁨에 겨운 우리는 눈물을 뿌렸노라"고 그 벅찬 심정을 표현하였다.

그동안 한인 대표 파견활동과 특별의연금 모금활동을 추진해 미주 한인사회의 중추기관으로 활동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졌다. 중앙총회장 안창호는 3월 9일 상하이에서 전보를 받은 당일 오전 11시, 가장 먼저 중앙총회 부회장이자 대표원 임시의장, 그리고 사무원인 백일규와 협의하고 독립선언 이후의 방침을 결정하였다. 첫째, 이승만·정한경·서재필과 북미 및 멕시코의 각 지방 한인사회에 독립 선언 소식을 전보로 발송할 것, 둘째, *San Francisco Examiner*와 *San Francisco Chronicle* 등 미국 언론에 3·1운동의 발발 소식을 알릴 것, 셋째, 중앙총회 임시협의회를 상항한인교회에서 개최하기로 정했다.

3월 9일 저녁 7시 30분 상항한인교회에서 개최한 임시협의회는 샌프란시스코와 그 인근 재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일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참석자들은 기쁨에 겨운 눈물을 뿌리며 미친 듯이 만세를 불렀다. 그 소리가 마치 천지를 진동할 정도였다. 안창호가 겨우 자리를 정돈시키고, 3·1운동 이후 재미 한인이 취해야 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개인이 독립의 각오와 일치된 행동을 가질 것, 둘째, 미국 각 언론·잡지나 종교계에 3·1운동 소식과 기독교 박해 사실 등 한국의 사정을 미국 국민에게 널리 알려 동정을 얻고 한인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얻도록 할 것, 셋째,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북미·하와이·멕시코 재류 동포들이 재정공급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 했다.

그런 후, 임시협의회는 6가지의 의안을 의결했다. 그중 중요 내용은 '평화회의 파견 대표자 이승만·정한경이 여행권을 얻지 못할 경우 서재필을 파견할 것, 만일 여행권 세 장을 얻을 경우 서재필·이승만·정한경 3씨를 파송할 것, 미국 각 종교계와 및 각 단체에 교섭하여 대한 독립에 대한 동정을 얻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섭위원으로 윤병구·정인과를 선정할 것, 태극기를 제작해 판매하고 때마다 사용하게 할 것' 등이었다.

이 같은 결정은 곧 부분 변경되어 먼저 파리강화회의의 새 대표였던 서재필 대신 윤병구로 변경되었고, 종교계의 교섭위원은 윤병구 대신 민찬호가 추천되었다.

하와이지방총회 총회장 이종관은 안창호에게 보낸 3월 9일 자 전보에서 이번 외교의 전권을 중앙총회장에게 맡기겠다고 알렸다. 이로써 중앙총회의 권위와 역할은 더욱 막강해졌다. 『신한민보』는 3·1운동의 소식을 신속히 보도하고자 매주 1회에서 3회로 증간 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새 편집인으로 이살음 목사를 추가했다.

독립의연금 모금운동과 대외 특파위원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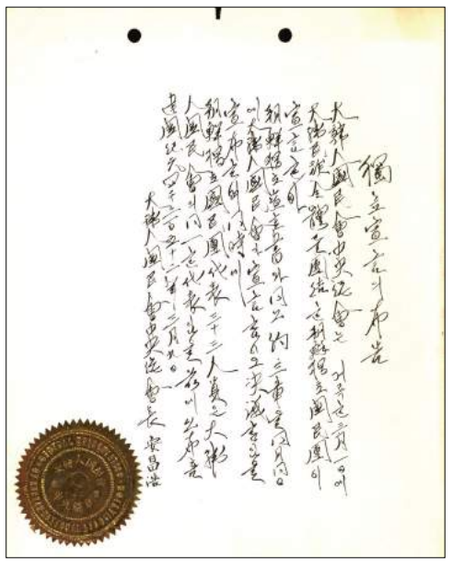
중앙총회는 3월 13일 임시협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근거로 12개의 재정 모금 규정을 제정해 공표했다. 독립운동을 위한 특별의연금의 명칭을 '독립의연'으로 정했고 중앙총회의 지휘 아래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4월부터 무슨 수입이든지 매월 또는 매 주일 수입의 20분의 1을 거두는 '21례'를 신설했다. 6월부터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징세령에 의거 인구세와 애국금 모집에도 착수했다. 그 외 미주 한인의 등록사업을 실시해 인구 조사활동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인구조사사업은 대한인국민회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단순한 인구조사 외에 독립의연 자금을 효과적으로 모금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었다.

중앙총회는 1919년 국제정세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뉴욕과 파리에 한인 대표 파견을 추진한 것 외에 다방면으로 특파위원을 선정해 파견하였다. 다양한 각도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가장 먼저 선임된 특파위원은 1919년 1월 4~5일 임시국민대회 때 본국 파송 비밀특파위원으로 선정된 여운홍이다. 그는 1월 11일 임명된 후 활동여비로 300달러를 받아 2월 1일 도쿄를 거쳐 2월 18일 서울로 들어갔다. 그는 귀국하기 전 헐버트와 협의하여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 독립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국내에서 1백만 명의 서명을 받는 운동을 추진하려 했는데, 이미 2·8독립선언과 3·1운동이 준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중단했다.

안창호는 1919년 1월 4일 임시국민대회 때 하와이 순방계획을 확정했다. 그런 후 해외 전체 한인의 대동단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3월 5일 정인과·황진남과 함께 원동특파원이 되어 4월 1일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상하이로 갔다. 그밖에 3월 15일 중앙총회는 군사상 준비를 목적으로 박용만·노백린을 원동특파위원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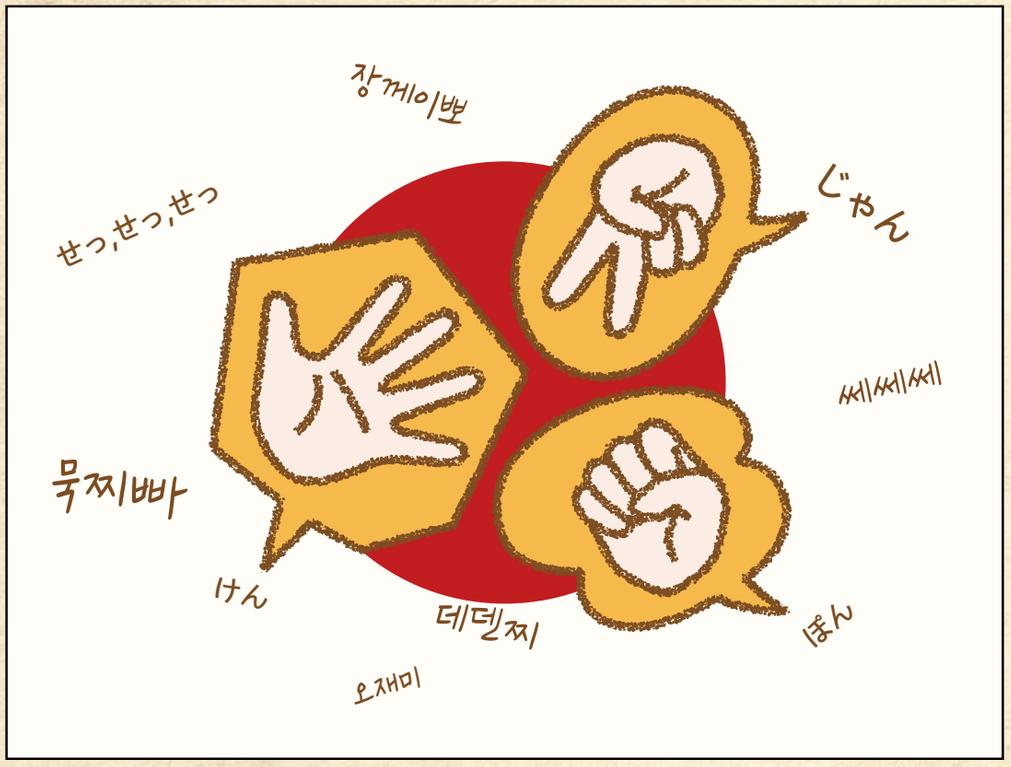
독립의연금 모금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미주 특파위원도 임명했다. 1919년 3월 17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9개 주의 한인 동포들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일치단합을 꾀하고 독립의연을 모집할 특파위원으로 김정진('김호'의 옛 이름)을 임명하였다. 4월 4일 중국인 대상으로 독립의연을 모금하기 위해 김영훈·홍언·강영각·임정구를 화교위원으로 임명했고, 5월 15일 특별의연금 모금활동과 한인사회의 정돈을 위해 특파전권위원으로 강영소·황사용을 하와이로 파견했다. 그 외 미주 각 지방에서 활동할 독립의연 수전위원(收錢委員)들을 임명하였다. 이처럼 3·1운동 직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대대적인 '독립의연' 모금운동과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특파위원들을 선정해 국내는 물론 중국과 하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로 파견하였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 공포한 「3·1 독립선언 포고문」(1919.03.09.)



글 편집실

추억의 놀이와 일제 문화의 잔재



어릴 적,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자연스레 익히는 노래가 있다. 친구와 손바닥을 마주치거나 고무줄을 넘으며, 흥얼거렸던 노래들은 내가 불렀고, 어머니가 불렀으며, 할머니의 유년 시절 추억마저 차지하고 있다. 이 오래된 노래들은 자칫 우리의 전래 동요로 여겨지기 쉽지만, 일제강점기 일본 곡조의 영향을 받아 작곡되거나 일본 동요에 우리말 가사를 붙인 경우가 많다.

무심코 흥얼거린 '쎄쎄쎄'의 의미

손뼉치기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노래에 맞춰 손바닥을 맞부딪치며 하는 놀이다. 노래도, 손바닥을 부딪치는 동작이나 방법도 다양하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쎄쎄쎄'로 시작하는 다음의 노래다.

쎄쎄쎄.
아침 바람 찬 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우리 선생 계실 적에 엽서 한 장 써주세요.
구리구리구리구리 가위바위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한지 손뼉치기 놀이는 그 이름 대신 쎄쎄쎄라는 말로 더 많이 불린다. 이처럼 거의 고유명사나 다름없이 쓰이는 쎄쎄쎄는 사실 일본어다. 일본어로 풀면 'せっせっせっ(셋셋셋)'. 즉 손을 마주 대다, 접촉한다는 의미의 일본어 '셋스루(接する)'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래 말미에 등장하는 '구리구리'도 물건이 굴러가는 모습을 표현한 일본의 의태어로 보는 견해가 있다. 마지막에 외치는 '가위바위보'를 '장께이뽀(じゃんけんぽん, 가위바위보의 일본어 표현)'로 기억하는 어른들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본래 일본 노래였으니, 가위바위보보다 장께이뽀가 원곡에 더 가까운 가사인 것이다.

다만 손뼉치기 놀이 그 자체를 일본 고유의 놀이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우리 역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손바닥을 마주치는 놀이를 즐겨왔고, 서양 문화권에도 비슷한 놀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손뼉치기 놀이를 일제 문화의 잔재로 보는 것보다는 쎄쎄쎄가 일본 동요임을 인지하는 편이 옳다.

일제, 우리 놀이를 침략하다

쎄쎄쎄의 경우처럼 가사에 일본어가 곧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놀이를 하며 흥얼거리는 익숙한 곡조의 동요 중 상당수가 일본에 뿌리를 두고 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똑똑똑 누구십니까" 등의 노래가 대표적. 마치 전래동요처럼 세대를 아울러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 노래가 일본에서 유래됐음을 알기란 쉽지 않다.

노래뿐 아니라 놀이에 사용되는 용어에서도 일제의 잔재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장께이뽀'도 마찬가지인데, 장께이뽀는 해방 후에도 꽤 오랫동안 가위바위보를 대신해 사용되었다. 술래잡기의 일종인 '다방구' 놀이, 콩주머니를 가지고 노는 '오재미', 놀이에서 편 가르기를 하며 외치는 구호 '데덴찌' 등도 있다. 또한, 가위바위보 놀이의 변형인 '묵찌빠'는 일본의 '구찌빠' 놀이에 기반한다. 구찌빠는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놀이로, 구는 '군함', 찌는 '침몰', 빠는 '파멸'을 의미한다. 그저 가위와 바위, 보를 번갈아 내며 노는 단순한 놀이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일제 군국주의 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즐겨왔던 추억의 놀이에는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짙게 배어 버렸다. 정작 우리의 진짜 전통놀이는 그 개념과 존재가 모호해졌다.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레 사라진 것도 있지만, 손뼉치기 놀이처럼 일제강점기 일본 문화와의 결합을 거쳐 변형된 경우도 있다. 우리의 집단 전통놀이 중 하나였던 '석전(돌싸움)'은 일제의 금지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처럼 일제의 잔재는 아이들의 문화나 다름없는 놀이에까지 남아있었다. 하루아침에 그것을 완전히 바꾸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일제의 잔재임을 알고, 바꾸려 노력하는 것은 그보다 쉽지 않을까?

글 김종성 역사작가

대제국 수나라, 살수에서 수장되다

1840년 아편전쟁에서 유럽 열강이 청나라를 꺾은 뒤로, 세계사는 유럽 중심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안드레 군더 프랑크는 『리오리엔트』에서 "19세기에 유럽 중심적 세계관이 발명되어 전파"됐다는 말로 이 현상을 설명한다. 이렇게 유럽인의 시각으로 역사가 조명되다 보니, 유럽 외부에서 발생한 고대의 위대한 사건들은 현대인들의 주목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612년에 고구려가 수나라를 격퇴한 역사적인 사건도 그랬다.

수나라의 야심 찬 꿈

612년에 수나라 양제(수양제)는 고구려 침략군을 두 방향으로 파견했다. 육군은 랴오둥(요동)반도를 지나 평양성으로 향하고, 수군은 산둥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평양성으로 가도록 했다. 이때 수군은 육군이 고구려 땅에서 먹을 군량미를 운반했다. 육군은 고구려에 갈 때까지는 각자가 등에 맨 식량을 먹고, 고구려에 도착한 뒤에는 수군이 제공하는 식량을 먹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병력 규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수나라 역사를 기록한 『수서』 '양제 본기'에 따르면 육군의 전투 병력은 113만이었다. 하지만 "물자를 공급하고 수송하는 인원수는 1배였다"고 한다. 전투병력 113만 외에, 그와 비슷한 규모의 비전투병력이 물자 공급과 수송을 담당했던 것이다. 한편, 수군은 최소 5만에서 10만 명이었다. 그래서 『수서』는 이 병력을 200만으로 부른다. 어찌나 병력이 많았던지, 육군 전체가 출발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 동아시아 최강국인 수나라가 200만이라는 대군을 동원해 국운을 건 일대 모험을 벌인 것이다. 그들이 모험을 감수했던 것은 고구려가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수나라의 권위를 인정하고 굴복하라는 요구를 고구려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기 304년, 유목민들인 흉노족·선비족·갈족·저족·강족이 북중국을 점령한 뒤부터 중국 대륙은 근 3백 년간 대혼란에 빠졌다. 이를 수습하고 589년에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바로 수나라다. 그런데 수나라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과제에 도전했다. 한나라(기원전 202~서기 8년) 때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사군이라 불린 네 개의 군을 고조선 땅에 설치한 것에서 나타나듯, 한나라는 이웃나라들을 형식적으로나마 자국 행정구역에 포함하려고 시도했다. 수양제가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 점령을 시도한 것은 한사군의 영광을 재현하고 고구려를 자국 행정구역에 편입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양제의 시도는 무위로 끝났다. 612년의 제1차 침공에 실패한 그는 613년에 제2차 침공, 614년에 제3차 침공을 거듭 감행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제4차도 계획했지만, 그것은 사전에 포기했다. 막강한 수나라가 이렇게까지 꼬이게 된 것은 612년 제1차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주는 시

수나라의 제1차 침공에 맞서 고구려 영양태왕(고구려 군주의 정식 명칭은 태왕)은 을지문덕에게 육상 방어를 맡기고, 동생인 고건무(훗날의 영류태왕)에게는 해상 방어를 맡겼다. 한편, 적군이 식량을 약탈할 경우에 대비해 백성과 곡물을 주요 지역의 성으로 옮겨두었다. 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기는 했지만, 백성과 귀족들이 중앙정부의 지휘를 잘 따라주었기에 고구려는 침략군에 맞서 총력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수양제는 자신만만했다. 고구려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200만 대군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 당연히 자신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해로를 따라 평양에 도착한 수나라 수군은 고건무의 유인 작전에 휘말려 평양성을 함부로 침입했다. 고구려군이 도읍을 포기한 줄 알고 성내에 들어간 수나라 군대는 곳곳에 매복한 병사들의 공격을 받고 대패했다.

살수대첩 전시 모형(전쟁기념관 제공)

그들이 갖고 온 양곡 수송선도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육군이 먹을 군량미가 바닷속에 가라앉은 것이다. 어찌할 수 없게 된 수나라 수군 사령관 래호아는 작은 배를 타고 홀로 도주해 바다에서 대기했다. 수양제의 작전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수나라 육군도 난관에 봉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육군은 중국대륙과 만주를 가르는 요하를 건넌 뒤 고구려 전방인 요동성을 공격했다. 하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전투가 장기화됐다. 그러던 중 고구려군이 항복 의사를 밝혔지만, 수나라군의 지휘체계 때문에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수양제는 현장 지휘관에게 전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은 이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황제에게 전령을 파견해야 했다. 요하는 건넜지만 요동성에는 도착하지 않은 수양제에게 보고하러 간 사이 고구려군은 전열을 재정비했고, 항복은 없었던 일이 됐다. 수나라군은 계속해서 요동성에 발이 묶여야 했다.

조급해진 수양제는 돌파구를 모색했다. 별동대 30만을 선발해 평양성을 직공 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 고구려 전방도 뚫지 못하면서 후방을 기습할 길을 강구한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명장 을지문덕의 역량이 발휘됐다. 육군 사령관인 그는 본격 전투에 앞서 적진 교란에 나섰다. 대담하게도 홀로 말을 타고 수나라 별동대 군영에 들어갔다. 항복하겠다며 들어가서 수나라 장군 우중문을 만난 그는 병사들이 몹시 지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병사들을 좀 더 지치게 만들 필요성을 절감했다. 을지문덕을 돌려보낸 우중문은 생포하거나 죽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전황이 꼬인 상황에서 고구려 사령관이 생포되거나 죽임을 당하면, 전세가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었다. 뒤늦게 이를 깨달은 우중문은 병사들을 급파해 "할 말이 있으니 다시 돌아오라"고 을지문덕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핑계를 대며 사양한 뒤, 후대에 두고두고 남을 편지 한 통을 우중문 부하들에게 쥐어 주었다.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試)'. 우리말로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주는 시'로 번역되는 이 시는 "신비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오묘한 전략은 땅의 이치마저 다했네/전승의 공로 이미 높고 높으니/만족함을 알고 그대 돌아가기를 원하노라"라는 네 구절로 돼 있다. 할 만큼 한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라는, 치켜세워주는 듯하다가 조롱으로 끝내는 시다.

시를 받아든 우중문은 흥분을 참지 못했다. 30만 대군을 동원해 을지문덕 추격에 나섰다. 을지문덕은 조금 싸우다가 곧바로 도주하는 방식으로 적군을 계속해서 남쪽으로 유인했다. 하루에 일곱 번씩이나 전투하다가 달아난 적도 있었다. 수나라 군대의 보급선이 길어지도록 유도한 것이다. 을지문덕을 쫓는 데 급급했던 우중문은 살수(청천강)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넌 뒤 평양성까지 다다랐다. 그제야 군량미 문제를 걱정하게 된 그는 회군을 결정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우중문이 꼬리를 보이자 을지문덕은 별동대를 추격하는 한편, 특공대가 수나라 군대를 앞질러 살수에 가 있도록 했다. 모래주머니로 살수의 강물을 막아놓고, 수나라 군대가 타고 갈 선박들을 치워버리기 위해서였다.

살수에 도착한 우중문은 선박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강에 물이 별로 없어 건너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을지문덕 부대에 쫓기면서 강이 말라버린 이유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걸어서 도강하기로 결심했다. 이 부대가 강 중간쯤 건넜을 때, 을지문덕은 막았던 강물을 탁 틔웠다. 거센 강물이 수나라 군대를 뒤엎었고, 그들의 전열은 흐트러졌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고구려군이 총공격을 개시했다. 처음에 30만이었던 수나라 별동대 중에서 전투 후 살아남은 숫자는 3천도 안 됐다.

30만 병력을 살수에서 잃은 수양제는 전의를 상실하고 철군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수나라는 6년 뒤인 618년, 결국 멸망했다. 중국 통일 2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한나라의 영광을 재현해 동아시아를 자국 행정구역에 편입시키고자 했던 수나라의 꿈은 영양태왕·을지문덕·고건무와 고구려인들의 총력전에 부딪혀 살수에서 수장되고 말았다. 당시 동아시아는 중동의 오리엔트 문명권에 이어 세계 2위 문명권이었다. 세계사가 공정하게 기록됐다면, 세계 2대 문명권에서 발생한 이 위대한 전쟁을 세계인 대다수가 모를 수 없었을 것이다.

제32회 독립기념관 관람감상문 공모대회 수상작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알려준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에 오면서 엄마께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는 독립기념관에 오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제게는 증조할아버지입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당했을 때, 일본군에 징용당해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생각하니 일본이 미웠습니다. 해마다 생신 때면 가족 나들이 겸 독립기념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독립기념관에서 가족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사진이 가족이 함께한 마지막 사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에게도 독립기념관은 특별한 추억이 묻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원 신풍초등학교 최지원

글·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45일간의 짧은 전쟁 그 역사의 흔적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다는 뜻의 고립무원(孤立無援). 우리는 삶을 통해 고립무원과 같은 경우를 시시때때로 경험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 한가운데 놓였을 때, 내 생각의 틀에 갇혔을 때, 혹은 억울한 누명에 휘둘릴 때도 그렇다. 인간의 삶이란 고립무원의 연속인지도 모를 일이다. 380년 전에도 구원의 손길이 전무했던 곳이 있었다. 병자호란(1636.12.~1637.01.)의 중심지였던 남한산성이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45일의 항쟁. 그 능멸과 치욕의 순간들이 지금은 눈에 뒤덮였지만, 역사는 우리네 삶을 통해 반복되고 있다. 소설 『남한산성』과 함께 그곳으로 문학기행을 떠나본다.

1

서울의 마지막 보루, 난공불락의 요새 남한산성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역사를 재조명한 작품들은 많다. 그 가운데 소설 『남한산성』은 '우리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라고 평가받는 김훈 작가의 소설이다. 김훈 작가는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첫 장을 넘긴 이후부터 마지막 장까지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을 만큼 몰입시켰다. 병자호란과 남한산성에서의 항쟁, 익히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김훈 특유의 냉혹한 문체는 독사에게 물려 온몸에 독이 퍼지는 것처럼 가슴을 아프게 했다. 소설 속에서 역사는 이미 끝난 과거가 아니었다. 역사의 톱니바퀴는 지금도 여전히 회전하면서 현재를 지배한다. 미래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예로부터 경기도에는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네 곳의 요새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동쪽 요새인 광주의 남한산성이다. 남한산성이 자리한 남한산(해발 535m)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다. 넓게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좁게는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한다. 약 7km에 이르는 남한산성은 대부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속한다. 서울에서 약 24km 떨어진 곳이다. 광주시는 약 80%가 산이며 평야는 20%에 지나지 않는다. 산골짜기에는 물이 많아 하천을 형성하였는데 물길은 한강으로 흘러간다.

남한산성은 삼국시대 패권을 결정짓는 주요 거점이었다. 백제 시조 온조대왕(미상~28)의 사당인 숭열전이 산성에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남한산성에서 여러 차례 국난을 이겨나갔다. 고려의 대몽항쟁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 들어서는 인조(1595~1649)가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했다. 집권 2년 차인 1624년부터 1626년의 일이다. 그 결과 성의 둘레가 6,297보, 옹성 3개, 대문 4개, 암문 16개, 우물 80개 등에 달했다. 왕이 거처할 227칸의 행궁도 함께 지었다. 조선의 역대 왕들은 여주에 있는 영릉에 참배 갈 때 남한산성 행궁에 머물며 군사훈련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선시대 남한산성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도성을 지키는 보장지로 인식되었고, 유사시 예비 수도 역할을 담당하였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을 통해 제 역할을 다했다. 병자호란 당시 왕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남한산성에 피신하여 청의 13만 대군에 맞서 45일간 항전하였다.

소설에서는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해 겨울은 일찍 와서 오래 머물렀다. 강들은 먼 하류까지 옥빛으로 얼어붙었고, 언 강이 터지면서 골짜기가 울렸다. 그해 눈은 메말라서 버스럭거렸다. 겨우내 가루눈이 내렸고, 눈이 걷힌 날 하늘은 찢어질 듯 팽팽했다. 그해 바람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습기가 빠져서 가벼운 바람은 결마다 날이 서 있었고 토막 없이 길게 이어졌다. 칼바람이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눈 덮인 봉우리에서 회오리가 일었다. 긴 바람 속에서 마른 나무들이 길게 울었다. 주린 노루들이 마을로 내려오다가 눈구덩이에 빠져서 얼어 죽었다. 새들은 돌멩이처럼 나무에서 떨어졌고, 물고기들은 강바닥의 뻘 속으로 파고들었다. 사람 피와 말 피가 눈에 스며 얼었고, 그 위에 또 눈이 내렸다.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었다."

김훈의 『남한산성』 중(학고재 출판, 2007)

1 남한산성 행궁의 정문인 한남루
2 눈 덮인 산 능선에 칼바람이 숨죽이고 몸을 숨긴 것 같다
3 암문은 비밀스러운 문으로 적의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졌다. 사진은 서암문이다
4 성곽 뒤로 남한산 능선이 앙상한 공룡의 등뼈처럼 흘러간다

2

3

4

새하얀 눈으로는 치욕의 역사를 덮을 수 없다

남한산성 트레킹은 모두 5개 코스다. 각자 체력이나 시간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1코스는 문화재와 성곽길을 즐기기 좋은 코스로, 3.8km 구간에 80분 정도 소요된다. 산성종로(로터리)에서 출발~북문~서문~수어장대~영춘정~남문을 거쳐 산성종로(로터리)로 복귀한다. 2코스는 가장 짧은 구간이다. 산성종로(로터리)에서 영월정~숭열전~수어장대~서문~국청사를 지나 산성종로에 이르는 2.9km에 60분 남짓 걸리는 구간이다. 5코스는 성곽을 일주하는 코스다. 7.7km 구간에 3시간 30분 이상 소요된다. 모든 코스의 시작 지점이라 할 수 있는 산성종로(로터리)는 언제나 붐빈다. 주변에 식당이 많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나들이 명소로 알려진 까닭이다. 길을 나서서 처음 도착한 곳은 북문이다. 정조 3년(1779) 성곽을 개보수한 뒤 전승문(全勝門)이라 하였다. 다시는 병자호란과 같은 치욕을 당하지 말자는 뜻이다. 북문 성곽을 따라 서문으로 가는 길은 1km가량 걸린다. 길이 가파르다. 특히 눈이 내린 다음 날에는 아이젠이 필수다. 성곽 아랫길로 가면 좀 더 수월하다. 서문 못미처 성 밖으로 돌출된 옹성이 있다. 옹성에 서면 한강과 하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이어 우익문(右翼門)이라 불리는 서문에 도착한다. 인조가 이 문을 통해 삼전도에서 청에 무릎을 꿇었다.

성곽은 험준한 주변 산세에 기대어 튼튼하게 지어졌다. 성벽은 종이 한 장도 허락하지 않을 기세다. 인조가 제대로 몸을 숨긴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추위와 배고픔,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고립감과 공포감은 임금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야 말았다. 성문지기처럼 서 있는 느티나무가 쓸쓸하고 애잔해 보이는 것은 삼전도의 눈물을 알기 때문일까.

발걸음을 재촉해 서장대라 불리는 수어장대에 이른다. 인조 2년(1624) 남한산성을 수축할 당시 4개의 장대가 있었는데 현재 유일하게 남은 장대다. 45일간의 항전 기간 중 인조가 이곳에서 직접 군사를 지휘하였다고 전한다. 당시에는 단층 누각이었으나 영조 27년(1751)에 2층으로 증축하고 '수어장대'라는 편액을 걸었다. 성곽을 따라 1km 남짓 걸어가면 지화문(至和門)인 남문이다. 남한산성의 사대문 중 규모가 가장 웅장하다. 병자호란이 닥치자 인조가 서울을 버리고 이 문을 통과해 성으로 들어갔다.

남한산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임이 분명하다. 축조 이래 단 한 번도 적군을 안으로 들이지 않은 철옹성이다. 다만 시대를 읽지 못하는 위정자들이 화를 자초하여 숨어들었고 겁에 질려 스스로 나왔을 뿐. 역사의 오물은 눈으로 덮인 듯 보이지만, 봄이 오면 금세 드러나고 만다. 고립무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5 추위에 봄이 더 기다려지는 것은 비단 나무만이 아닐 것이다
6 인조가 청에 항복하기 위해 나갔던 우익문
7 인조가 군사를 지휘했던 수어장대
8 다시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뜻으로 지은 전승문 편액
9 인조가 한양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입성한 지화문

영화 <김복동>이 주는 교훈

김복동(2019)
다큐멘터리 | 101분 | **감독** 송원근
출연 김복동(본인), 한지민(내레이션)

글 강성률 영화평론가, 광운대학교 교수

역사가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항상 완결된 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역사는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에 놓여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흔을 넘긴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사람들 앞에 섰다.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투쟁했던 김복동 할머니의 지난 27년을 담은 작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한다.

김복동이라는 이름의 역사

2019년 8월 8일 다큐멘터리 한 편이 개봉했다. 영화는 그해 1월 28일 작고한 한 분의 삶을 다뤘는데, 기이한 일이 발생했다. 영화에 관한 입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이 영화를 관람한 것이다. 지금까지 집계된 것으로는 약 8만 9천여 명이 관람했다. 혹자는 말할지도 모른다. 천만 명 이상을 동원한 영화가 2019년에만 무려 5편이 등장했는데, 겨우 10만 명도 들지 않은 영화를 두고 과장이 심한 것이 아니냐고.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한국 독립 영화계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독립 영화 가운데 1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영화는 그리 많지 않고, 무엇보다 독립 다큐멘터리 가운데 10만 명에 육박하는 경우는 몇 년에 한 편이 겨우 등장할 정도이다. 이렇게 보면, 한 해에 천만 영화가 다섯 편이나 등장한 것보다 더 드문 일이 작년에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어떤 영화를 이야기하는지 알고 계실 것이다. 영화 <김복동> 이야기다. 16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23살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아픈 상처를 숨기고 악착같이 살아야 했던 그녀. 자식 없이 남편마저 죽자, 사건 후 50년만인 1992년에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할머니가 피해자의 상처를 가장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니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증언해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서슴지 않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들의 증언이 쏟아졌고, 비로소 일본군 '위안부'는 세계적 인권 문제와 전쟁 성범죄 문제로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더욱 외로웠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실을 증언한 후 언니와 조카들은 발길을 끊었고, 그녀는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로 사무치는 외로움을 견뎌냈다.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김복동> 외에도 많다. 대략 10편 정도 되는데, 개인을 다루지 않고 단체를 다룰 때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이 김복동이다. 그만큼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다. 수요 집회에도 참석하고, 유럽이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를 열심히도 다녔다. 심지어 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 그들의 사죄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외국으로의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 눈 내리는 겨울, 집을 나와 하얀 정원을 노구로 걸어가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묘한 아픔을 느낀다. 또 다른 장면, 암이 발병한 상태로 교토조선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수여할 때 김복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자 관객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

김복동 할머니를 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거의 전 재산을 후진 교육을 위해 기부했으며 평화와 통일의 신념과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전파시켰다"라고 평가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녀는 지울 수도 없고 지워서도 안 되는 상처를 가슴 깊이 안은 채 상처에 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상처를 가지지 않도록 용감하게 싸워온 운동가였다.

그러나 소원이었던 "아베한테 진심 어린 사죄를 받는 일"은 성취되지 않았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협상을 맺으며 10억 엔을 받는 대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종결을 선언했다. 더구나 소녀상을 우리 정부 스스로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영화 안에서 가장 분노가 이는 장면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가 10억 엔으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자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젊은 회원들이 강하게 반대한다. 이들은 말한다. "피해자가 용서하지도 않고 가해자가 사과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가 먼저 화해를 말하고 치유를 말한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나요", "서로 싸운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가해자이고 한 사람이 피해자인데 화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요"라고. 덧붙일 말도 뺄 말도 없다. 기자회견장에서 울면서 경찰에게 끌려가던 그 젊은 친구들도 아는 것을 당시 정부는 왜 몰랐을까?

이제 김복동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우리는 여기에 남겨졌다. 아베 정부는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를 하면서 일본의 내부 위기를 무마시키려 하고, 일본 우익들의 혐한(嫌韓)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 극우 정치인과 극우 국민들이 버젓이, 점점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의 식민지 폭력에 대한 사죄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 같다. 심지어 징용자 배상 문제를 두고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내렸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한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영화 속 김복동은 죽는 순간까지 아베의 사죄를 받아내려고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지독히도 단순하다. 그런 김복동의 태도를 이어받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글 편집실

우리 집 안의 작은 숲 홈 가드닝

삭막한 도시에서 자연은 때때로 안식처가 된다. 그러나 빌딩 숲 사이에서 진짜 자연의 숲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 '집'에 자신만의 숲을 만들기 시작했다. 넓은 마당이 없는 집이어도 괜찮다. 베란다와 창가 등 볕이 잘 들고 화분을 놓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 장소는 준비되었으니 이제 홈가드닝을 시작해보자.

우리가 식물을 기르는 이유

이전에도 집에서 식물을 기르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본격적이고 전문적인 형태의 원예를 취미로 즐기며 홈가드닝(Home Gardening)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사실 식물은 예민하다. 저마다 최적의 온도와 습도가 다르니, 신경 써야 할 것이 제법 많다. 물론 비교적 덜 까다로운 식물도 있다. 그러나 이런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홈가드닝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한데, 이는 홈가드닝의 효과와도 상통한다.

먼저 식물의 공기 청정 효과를 들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 이슈가 두드러지면서 집이나 사무실에 화분을 두는 사람이 많아졌다. 식물 3~5개 정도가 있으면 실내 미세먼지를 2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천연 공기청정기가 따로 없다. 식물의 인테리어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식물 세밀화, 소위 보태니컬 아트가 유행하면서 벽에 푸른 잎사귀 그림 한 점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멋스러운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해졌다. 실제 식물이라면 더없이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 된다. 화분 디자인에 변화를 주거나 벽 또는 천장에 다는 행잉식물 등을 활용하여 허전한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식물은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반려식물이란 말이 있듯, 식물은 때마다 물을 주기만 하면 되는 물건이 아니라, 나와 교감을 나누는 가족의 역할을 한다. 홈가드닝은 특히 장년 및 노년층 사이에서 인기인데, 이들은 은퇴 후 시간을 식물과 함께 보내며 적적한 마음을 달랜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

홈가드닝을 망설이는 당신에게

식물을 보는 것은 예쁘지만 직접 키우는 일에는 자신이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볕 좋은 곳에 화분을 두고 열심히 물을 주는데도 금방 죽어버린다는 것. 문제는 너무 많은 볕과 너무 열심히 주는 물이다. 앞서 언급했듯 식물은 저마다 잘 자라는 환경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홈가드닝을 하려면 자신이 기르는 식물에 대한 이해와 원예의 전문성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만큼의 지식이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 섣불리 시작했다간 취미로 시작한 홈가드닝이 문제투성이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원예 초보자들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먼저 물을 주는 주기다. 보통 주기를 정해놓고 같은 양의 물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다. 물은 기간이 아니라 식물의 종류와 토양의 상태, 습도 등을 고려해줘야 한다. 흙을 만졌을 때 물기가 만져진다면 이는 아직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습도가 높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통풍이 있다. 원예에서 바람의 중요성이 간과되곤 한다. 실내에서는 바깥만큼 바람이 통하지 않아 과습으로 식물이 죽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과습은 해충과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그리고 식물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키우려면 분갈이는 필수다. 화분 속 흙에 있는 영양분이 모두 고갈되고 나면 식물은 자연스레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화분이 좁아 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식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분갈이 시기는 1~2년이 적당하다.

홈가드닝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식물

몬스테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관엽식물 몬스테라는 '몬스터'에서 유래된 그 이름처럼 크고 독특한 잎을 자랑한다. 몬스테라의 자생지는 열대우림으로, 볕과 물이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

스투키: 다육식물인 스투키는 건조함에 강하기 때문에 물을 오랫동안 주지 않아도 잘 자란다. 특히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나 실내에 두고 기르기 적당하다.

산세비에리아: 산세비에리아는 강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쉽게 죽지 않는다. 그늘에서도 강하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버틴다. 다만 열대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만큼 겨울철엔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산세비에리아 역시 공기정화 효과가 있다.

레이블 야자: 촘촘하게 돋아난 뾰족한 잎이 매력적인 레이블 야자. 레이블 야자도 비교적 관리가 쉬운 식물이다. 새잎이 잘 나는 편이라 원예를 막 시작한 사람들도 재미를 붙이며 키울 수 있다.

글 박정순 인천광역시 부평구

어느 생선장수의 프로정신

약 2년 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아파트에 이동장터가 선다. 장이 열리는 날이면 아파트 진입로는 물론 공터에 외부 상인들의 간이 천막 노점이 빼곡하게 들어찬다. 정문 경비실에서 기역 자 방향으로 꺾인 곳, 그 중간 즈음에 생선장수가 자릴 잡았다. 중년의 사내는 첫눈에도 무척 어설퍼 보였는데, 외모나 분위기에서 그 바닥에 새로 발을 들여놓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경륜과 노련미가 풍기는 옆 점포 아주머니와 달리, 그는 호객은 고사하고 마치 손님 처분만 바라는 듯 멀뚱하니 서 있었다. 어쭙잖은 동정은 아니지만, 저럴 거면 이 거친 경쟁 마당에 왜 나섰는지 안쓰럽기까지 했다.

내가 사는 곳은 흔히 말하는 '역세권'이라 유명백화점과 할인마트들이 많았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단골슈퍼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굳이 그곳에 발길 멈출 일이 없었다. 장터가 열리든지, 말든지. 나의 무관심과 함께 시간이 흘렀다. 지난해 새해 모임을 끝내고 돌아오던 날 밤, 버스에서 내려 걷는데 도로 모퉁이에 가스등을 밝힌 생선 트럭이 보였다. 행상은 지난번 장터에서 보았던 그 생선장수 남자였다. '일요일이라 아파트 단지 안에 장이 서는 날인데 왜 저기에 있지?'하고 의아해하며 트럭을 지나치는데, 그가 살갑게 말을 걸어왔다.

"아이고, 사모님. 이 생선 좀 구경하고 가세요."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주꾸미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물론 의중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빈말이었지만, 모처럼 들어본 사모님 호칭에 황송할 따름이었다. 그간 고객 응대 전문학원이라도 다닌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다. 최선을 다하려는 그의 태도에 난 건성 웃음으로 답례했다. 남자가 내 눈치를 살피더니 트럭 맨 앞쪽에 실린 동태 궤짝으로 간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멘트인 듯 능청스럽게 말한다.

"야, 이놈아. 네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모님이 드디어 오셨다. 냉큼 새해 인사 올려라. 옳지, 공손하게!"

납작한 가자미를 펴 보이며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 내가 올 때를 기다리다 눈이 돌아갔다는 감언이설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려 하자 남자는 다시 옆에 놓인 고등어 상자를 가리켰다. 목소리도 아주 은근해졌다.

"아따 요 녀석들 보게. 아까만 해도 눈을 떴다 감았다가,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더니만 사모님 외모에 반해서 금방 다 까무러쳐 버렸네. 멀쩡한 놈들을 몽땅 기절 시켜 놨으니 몇 마리 책임지셔야 되겠어요."

그는 내 반응을 보고는 비닐봉지에 생선을 골라 담기 시작했다. 눈치도 빨랐다. 우리 다섯 식구가 한 끼 먹기에 딱 맞는 양을 손질하여 건넸다. 국물 우릴 때 쓰라며 바지락 한 줌까지 덤으로 챙겨주었다.

영하의 한겨울, 남들에게는 쉬는 날이나 다름없는 일요일 밤까지 생선 한 마리라도 더 팔아보려 애쓰는 모습을 보니 짠한 마음이 들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간에 어물 행상으로 생업을 바꾼 어느 가정의 가장일 터.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장터 계약이 끝나 요즘은 단지 안에서 장사를 하지 않는단다. 그러나 그동안 쌓아온 단골손님도 있고, 동네와 정도 들어 일요일에 종종 오곤 한다는 것. 길거리 장사는 단속도 심할 뿐 아니라, 상가 상인들과의 마찰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떨어진 곳에 트럭을 세운다고 했다.

남자의 꿈은 열심히 노력해서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장만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생선 비늘이 덕지덕지 붙은 앞치마와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그 모습이 꽤 자연스러워 보였다. 가스등 아래 비친 얼굴에선 굳은 의지마저 느껴졌다. 분명 처음 보았을 때만 해도 장사와는 도무지 맞아 보이질 알았는데, 저토록 바뀌기까지 얼마나 많은 각오와 노력을 거듭했을지. 집에 돌아와 곰곰 생각해보니 생선 행상의 얼렁뚱땅 상술에 넘어간 거 같다. 그러나 마음이 쓰리진 않았다. 지금이면 잔챙이 한 마리 남김없이 다 팔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 고등어를 구웠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설거지까지 마친 뒤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생선장수도 하루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가족들과 오순도순 모여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다음에 또 만나면 값비싼 어종은 장담 못 해도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동태나 도루묵은 지갑 형편 보아 사줘야겠다. 아울러 저 거리의 아저씨가 하루빨리 앉은자리 가게를 갖기를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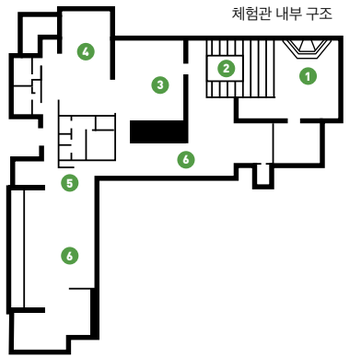
글·사진 이종철 작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함께하는 독립운동'

'함께하는 독립운동' 체험관 어린이·청소년·성인존 탐방

'함께하는 독립운동' 체험관은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힘쓴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민족이 함께 투쟁한 노력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곳이다. 여기서는 우리 독립운동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봄으로써 나라사랑의 정신을 느껴볼 수 있다.

체험관 내부 구조



독립운동가가 되어보는 특별한 체험

'함께하는 독립운동' 체험관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독립운동가가 된다. 영·유아부터 어린이·청소년, 그리고 성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우리 독립운동의 면모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저항정신과 민족문화를 익히고 조국 광복의 기쁨을 느껴볼 수 있다. '함께하는 독립운동' 체험관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체험과 게임을 통해 관람객에게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여타 전시관과는 다르다.

❶ 외쳐라! 만세

체험관 로비에 마련된 누정은 3·1운동이 시작된 탑골공원 팔각정을 재현한 것으로, 당시 민중들의 모습을 본뜬 동상 앞에 서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체험이다.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관람하면서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❷ 준비 땅! 나도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가 되려면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 이곳에서는 비밀임무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군 암호를 배우고 운동 감각을 기르는 유격 훈련을 해볼 수 있다. 또 독립운동의 상징인 태극기를 알아보며 독립운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배운다.

❸ 세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수립돼 우리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내가 꿈꾸는 나라의 이름을 짓고,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1조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 영상 속 김구 선생의 안내에 따라 퀴즈를 풀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알아보고, 게임을 통해 비밀 요원이 되어 특수작전에 투입되는 기회도 얻는다. 독립운동자금을 기부하고 독립공채를 획득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핀볼게임도 있다.

❹ 탕! 탕! 나도 독립군

독립군의 일원이 되어 항일무장투쟁을 체험하는 곳이다. 친구와 함께 2인 1조로 전투에 참여, 국내진공작전에 투입되어 특별 임무를 수행한다. 일본군 부대에서 탈출해 한국광복군이 되어보고, 태극기 위에 자신의 서명을 남길 수도 있다. 일본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독립군의 숭고한 저항정신을 느낄 수 있다.

❺ 지키자! 우리말·우리 문화

우리 민족정신을 말살하려 했던 일제에 맞서 우리의 말과 역사,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도 있었다. 벽면에 있는 단어 퍼즐에 공을 던져 올바른 우리말을 찾고, 한 편의 국어사전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시에서 감춰진 단어를 찾아 저항시를 완성하는 활동도 한다.

❻ 만세! 다시 찾은 대한민국

1945년 8월 15일, 오랜 독립운동 끝에 나라를 되찾은 기쁨을 느껴보며 오늘날에도 유효한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곳이다. 감옥의 암호를 해독해 독립운동가를 구하고, 역사의 현장에 자신의 모습을 남겨보자. 자전거를 타고 독립운동 현장을 누비고, 나와 닮은 독립운동가를 알아볼 수도 있다. 그림 속에 숨겨진 약탈 문화재를 찾는 게임과 우리나라를 알리는 21세기 독립신문 발행, 한국광복군 배지 제작 등의 체험도 할 수 있다. 또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를 가상현실(VR)로 감상하고 통일과 세계평화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체험을 마무리한다.

'함께하는 독립운동' 체험관
어린이·청소년·성인존 안내

체험 대상 | 8세 이상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 성인

운영 시간 | 1회 10:00~10:50 / 2회 11:00~11:50 / 3회 13:00~13:50 / 4회 14:00~14:50 / 5회 15:00~15:50

체험 시간 | 50분

최대 인원 | 80명(회당)

체험 비용 | 무료
※ 일부 프로그램 유료 :
체험 카드(RFID) 2천 원,
독도 VR 체험 티켓 2천 원(회당 6명 선착순)

온라인 예약이 우선이며,
최대 인원 미달 시 현장 입장 가능

예약 및 문의 : 041-560-0700, www.i815.or.kr

정기 휴관일 :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정상 운영)

‘함께하는 독립운동’ 체험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함께하는 독립운동’ 체험관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장면을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흥미를 느끼고 독립정신을 오늘에 되살려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당시 3·1운동에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항일무장투쟁, 민족문화수호운동과 광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알게 된 학생들은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것에 공감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독립운동사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으로 뛰어난 공간입니다

통일 역사 관련 체험활동을 기획하던 중 ‘독립기념관에 가서 보고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에 학생들을 모집하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정신을 배울 수 있고, 학생들이 스스로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쳐보는 등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1운동, 항일무장투쟁 같은 역사적 현장의 한장면에 자신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큰 의미로 와닿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독립정신을 몸소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은숙(서울·교사)

독립운동을 더 가까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관련한 체험학습을 하려고 여러 기관을 둘러보다가 전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체험이라고 해도 보는 것 위주일 줄 알았는데 직접 던져보고 만져보고, 몸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학생들이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타 전시 체험과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어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한국 근대사는 어른들도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체험 위주의 활동을 통해 근대사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의 생생한 모습을 체득할 수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지길 희망합니다.

이정현(서울·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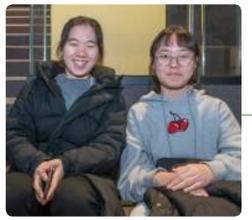
체험과 전시, 부족함 없이 모두 만족스러워요

탑골공원의 3·1운동 시작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친구들과 같이 외쳐보니 당시의 느낌이 어떠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간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때 민중들의 감정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했지만, 다음에는 가족과 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체험이 많고 전시물도 다양해서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체험하며 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민규(서울·중학생)

우리 독립운동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졌어요

독립기념관은 ‘언제 한번 와봐야지’ 했던 곳인데, 막상 와보니 생각 외로 규모가 크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놀랐습니다. 특히 독립군들이 얼마나 험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는지 알게 돼 뜻깊었습니다. ‘나라면 섣불리 하지 못했을 텐데’하며 반성도 하고, 독립투사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게 됐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게 됐고, 지금이라도 당시의 잔재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래의 친구들은 독립운동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돼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우리 독립운동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채영·채수아(서울·중학생)

01

여성독립운동가 시리즈 제1집 『3·1운동에 앞장 선 여성들』 발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의 생애를 다룬 한국 여성독립운동가 시리즈 제1집 『3·1운동에 앞장 선 여성들-김마리아, 권애라, 김향화, 박자혜』를 발간했다.

2018년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건국훈장을 추서한 독립운동가는 1만 5천여 명이지만, 이 중 여성독립운동가는 2% 정도에 불과하다. 독립운동은 보통 남성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독립운동 연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문헌 자료에 토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인 자료를 남기거나 공적 활동이 당시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되지 않는다면 독립운동 발굴 작업 자체가 매우 어렵다. 여성독립운동가는 이런 점에서 이중 사각지대에 놓인 존재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독립운동 족적을 조금이라도 밝혀내어 공감하여 소개하는 일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한 『3·1운동에 앞장 선 여성들-김마리아, 권애라, 김향화, 박자혜』는 특히 한국역사연구회가 만든 스타트업사업단 역사공장과 함께 기획·발간하여 학계의 중견 및 소장 학자들이 여성독립운동연구에 좀 더 나서주시길 기대하는 마음도 담았다. 제1권의 발간사에서 이지원 교수(대림대학교)는 저자를 대표하여 "여성독립운동가를 민족과 국가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기억하기 전에 여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억되기를 바란다. 독립운동은 식민지근대를 살아간 여성들의 삶의 현장이었다. 자신들이 사는 현실이 일제의 식민지인 것을 자각한 여성들이 물러서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선택한 곳에 독립운동이 있었다. 이 책에서 알려지지 않은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를 상상하며 시대와 함께했던 3·1운동의 여성 선배들을 만나길 바란다. 그들의 용기와 양심이 100년간의 시간을 넘어 삶의 불꽃을 피우고 있는 이 시대 모든 보통사람들의 마음에 오롯이 전해지면 더없이 기쁘겠다"고 밝혔다. 책은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역사공간, 14,000원)

0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와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학술교류협정 체결

독립기념관은 2019년 11월 26일,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4층 제1회의실에서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이은정)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연구, 학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통한 발전을 약속하였다. 또한, 공동학술회의 개최, 연구업적 교류 및 공동연구 추진, 연구자 교류, 학술자료 및 정보 교환 등의 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는 1948년 서베를린에 설립된 독일 국립 종합대학교로, 2005년부터 한국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2008년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번 학술교류협정은 독립기념관이 유럽에 소재한 연구소와 맺은 최초 협정으로, 향후 한국독립운동의 세계화 및 유럽 지역 독립운동 관련 연구 및 조사를 위한 협력 및 학술교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03

독립기념관 순회전시 신청 안내

독립기념관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정신 가치 확산을 위해 지자체·현충 시설 등을 순회하는 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회전시물 대여 신청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전시부 염진일 학예연구사 041-560-0275

독립기념관 순회전시물 목록

전시명	수량	패널규격	형태
독도 역사·자연 사진전	22	900x600	이젤 전시형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이야기	22	900x600	이젤 전시형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진전	22	900x600	이젤 전시형
그림으로 되살아난 민족혼	22	900x600	이젤 전시형
학교로 보는 한국 근현대사	20	900x600	이젤 전시형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독립운동사	18	1000x1870	롤업 배너형
문화재 태극기 사진전	24	600x1800	롤업 배너형
나라를 위해 싸운 여성들, 길을 만든 여성들	19	900x600	이젤 전시형

함평군립미술관(롤업 배너형)

독립기념관(이젤 전시형)

독립기념관 관람안내

관람안내

구분	입장시간	관람시간
동절기 (11월~2월)	09:30 ~ 16:00	09:30 ~ 17:00
하절기 (3~10월)	09:30 ~ 17:00	09:30 ~ 18:00

주차요금

구분	요금	대상
소형	2,000원	25인승 미만
대형	3,000원	25인승 이상
감면	면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1,000원	국가유공자 가족, 장애인, 경차, 하이브리드 차, 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개관)입니다. 단, 상설전시관 외 야외전시, 쉼터 등은 개방합니다.

일상 돋보기

월간 『독립기념관』이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일상 속 소중한 추억을 나눠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월간 『독립기념관』은 여러분의 친구이고 싶습니다.

참여안내

주　　제 | 자유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2매 이내
※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E - mail | sunny@i815.or.kr
주　　소 | (31232)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1, 월간 『독립기념관』 담당자 앞

월간 독립기념관, 이제 웹진으로도 만나보세요.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월간 독립기념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웹진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에서 독립기념관 친구 추가하고 문의, 불편사항, 제안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①카카오톡 실행 ②상담 검색창 터치 ③ 검색창에 독립기념관 입력 후 친구 추가

친구 추가 이벤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하고, 커피 10% 할인쿠폰 받으세요!
기　　간 | 2020년 2월 28일(금) 까지
사 용 처 | 도피오(주차장 근처), 겨레카페(겨레의집 내), 푸른정원(3전시관 옆)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아오는 2020년,
뜨겁고 치열했던 그날의 역사가 숨 쉬는
독립기념관에서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가세요.

2015년 겨울 사진공모전 입상작

이달의 주요 행사

2020. 01

전시

학술

제361회 월례연구발표회

교육

2020 독립군체험학교 중국 답사

제47기 교원직무연수

문화

2020 온 겨레 한마음 새해맞이 행사

2020.0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 2020 온 겨레 한마음 새해맞이 행사 신정	2	3 국민대표회의 개회 (1923, 상하이)	4 · 2020 독립군체험학교 중국 답사(~1/8)
5 김지섭 의거(1924)	6 · 제47기 교원직무연수(~1/12)	7	8 이봉창 의거(1932)	9	10	11
12 김상옥 의거(1923)	13	14	15	16	17	18
19	20 조선물산장려회 창립 (1923, 서울)	21 · 제361회 월례연구발표회	22	23	24	25 설날
26	27	28	29 국채보상운동 시작(1907)	30	31	